

# 고금리 '역머니무브'...주식 빼고 예금 들었다

(역자금 이동)

### 지난해 10월 말 광주·전남 은행 저축성 예금 48조원대 '사상 최대' 연간 주식거래 70조원대 전년비 53.5% 급감...연말 주가 약세 지속

잇단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장기화 영향으로 은행 예금으로 돈이 몰리는 '역머니 무브(Money Move·逆자금 이동)'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

1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광주·전남 예금은행 저축성 예금 잔액은 48조6862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4%(6조8565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광주는 21조3085억원에서 23조1074억원으로 8.4%(1조7989억원) 늘었고, 전남은 20조5212억원에서 25조5788억원으로 24.6%

(5조576억원) 뛰었다.

광주·전남 예금은행에서 저축성 예금 잔액은 통계를 낸 지난 2008년(10월 말 기준 20조5040억원) 이후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저축성 예금 잔액은 2019년 39조8233억원에서 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20년 38조4268억원으로 감소한 뒤 2021년 41조8297억원으로 늘어나며 2년 연속 증가 추세다.

이처럼 은행 예금으로 자금이 몰리는 걸 '역머니 무브'라 부른다.

돈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와 같은 고위험 고수익 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을 '머니무브'라고 하는데, 이의 반대 개념이다. 증시와 부동산이 호황을 이룰 때는 고위험 고수익의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지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을 때는 은행 예금으로 몰리는 '역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난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주식투자는 지난해 하락장 속에서 국내 기준금리가 6차례 연속 인상되면서 위축됐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집계한 광주·전남 주식거래대금은 지난해 70조5756억원으로, 전년(151조7132억원)보다 53.5%(-81조1376억원) 급감했다.

지난 2021년 광주·전남 주식거래 월 22조원 시대를 열며 주식시장을 호황을 맞았지만, 불경기가 지

속하면서 주식투자에 소극적인 지역민들이 늘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성탄절을 전후로 연말에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는 '산타렐리'를 기대했지만 광주·전남 지역민 주식거래대금은 전달보다 27.3%(-1조5135억원) 급감한 4조327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지난달 초 중국 코로나 조치가 완화되면서 전달 유입됐던 외국인 자본이 다시 유출되면서 하락세로 시작했다"며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밑돌며 고물가(인플레이션) 정점을 통과했다는 기대감에 반영했으나,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잇따르면서 통화 긴축 우려가 커지며 주식 시장도 약세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전남 142개 농·축협 조합장 조합장 선거 공명선거 다짐

전남 142개 농·축협 조합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깨끗하게 치르자고 다짐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1일 무안군 삼향읍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2023년 전남농협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남지역 142개 농·축협 조합장과 시·군지부장, 농정지원단장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는 3월8일 열리는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공명선거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약속했다.

조합장 선거 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2월23일부터 3월7일까지 13일간 선거 운동 기간을 거쳐 3월8일 선거가 실시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우 값 폭락·사료값 폭등 이중고...농가 돕기 나선다

### 농협 전남본부, 소비 촉진 행사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최근 가격 하락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를 돕기 위해 11일 소비 촉진 행사를 벌였다고 이날 밝혔다.

박종택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은 이날 목포 일로가축시장을 찾아 목포부안신안축협과 함께 한우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했다.

전남농협에 따르면 최근 사육값 등 농가재 가격은 오르는 데 한우 사육 두수가 증가하면서 산지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가축시장에서 한우 산지 가격은 큰 암소 1마리(600kg 기준) 478만2000원으로, 2022년 1월 가격인 602만6000원보다 20.6 하락했다.

암송아지(600kg 기준) 역시 같은 기간 286만4000원에서 198만8000원으로, 30.6% 내렸다.

이로 인해 농가가 받는 가격(600kg 기준)은 703만4000원에서 577만5000원으로, 1년 새 17.9% 하락했다.

전남농협은 선제적으로 수급을 조절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경산우비육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한우 농가의 자율 감축을 독려하기 위



농협 전남지역본부 박종택(왼쪽 두번째) 본부장이 목포 일로가축시장을 찾아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값이 떨어지고 있는 한우를 애용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해 마련됐다.

박종택 본부장은 "농협은 한우 가격이 생산비 이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설 명절을 준비하는 소비자는 농협 하나로 마트가 진행하는 한우 할인행사를 애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 "대출금리·한도 불만...참지 말고 이의제기 하세요"

### 금감원, 대출 상품설명서에 '개인신용평가대응권' 기재키로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과 신청방법을 오는 16일부터 은행 대출상품설명서에 반영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시행됐다.

대출 신청 때 금리나 대출한도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오지 않으면 은행이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한 것인지의 구실을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개인은 은행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국민의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강화해 부정확한 신용평가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이번 조치가 기대되는 효과를 설명했다.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신상정보(직장·직위 등), 거래내용 판단정보(대출 건수·신용카드 건수 등), 신용도 판단정보(연체 건수·연체 금액

등),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연 소득 등)다.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삭제 및 재산출 요구가 가능하다.

현재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행사할 수 있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고객센터에 전화해 우선으로 접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출상품설명서 개정을 통해 설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앞으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명 요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 및 일정은 은행별로 다를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법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개인에게 권리 내용을 설명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고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1년 연장

### 금리 3.3% 적용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이자 지원을 통해 은행이 고신용(개인평점 920점 이상)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저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기간 연장에 따라 애초 올해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기존 신청자는 내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시행한 지난해 1월24일부터 연말까지 모두 1조4400억원(8만1000건) 지원됐다.

올해 새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향후 2년간 저리로 신용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대상에

2020년 4월1일 시행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이용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연매출 5억원 이하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상대로 3000만원 한도에서 연 2.5%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이자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올해 중 만기가 도래하기 전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금리는 1년간 3.3%가 적용된다. 시중금리 상승을 고려해 지난해 1.5%에서 상향 조정됐다.

개편된 제도는 은행 전산시스템 보안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백희준 기자 bhj@

## 중흥그룹, 협력사 공사대금 1200억 현금 조기지급

중흥그룹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돕기 위해 공사대금을 명절 전 조기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대금은 약 1200억원 규모로, 중흥그룹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 50여개 공사현장의 협력업체들이 직원들의 임금 및 자재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흥그룹은 지난해 추석 명절 전에도 공사대금 1400억원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중흥건설 기성지급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와 상생에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흥그룹은 오는 16일 중흥건설 대회의실에서 우수협력업체에 감사패와 포상, 계약이행보 증보험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 또 협력 중소기업을 위해 매년 대·중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우수협력사에 인센티브 지원, ESG건설링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